

KCC, 현대 역공에 주가하락 속수무책

S&P, 신용전망 “부정적 관찰대상” 판정 ... 재정·영업리스크 높아져

금강고려화학(KCC)의 주가가 현대그룹의 역공과 S&P의 장기신용등급 하향조정 경고 여파로 급락했다.

11월18일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KCC 주가는 전날보다 10.74%나 하락한 8만4800원으로 마감됐다.

KCC의 주가는 11월13일을 제외하고는 6일부터 18일까지 연속 하락행진을 이어가면서 11만원대에서 결국 8만원대까지 추락했다.

18일 KCC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전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000만주에 대한 국민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히겠다는 점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1월17일 이사회를 열고 1000만주의 국민주를 공모하기로 결정해 KCC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현정은 회장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그룹 인수 방침에 맞서 초강경 카드로 응수한 것이다.

17일 기준으로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은 총 44.39%였고 현정은 회장의 지분은 28.30%로 양측 간 지분 격차는 16.09%p에 달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가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증자에 성공한다면, 정상영 명예회장의 지분은 종전 44.39%에서 15.95%로, 현정은 회장은 28.30%에서 10.17%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주에 신주의 20%(유상증자 후 12.81%)가 우선 배정돼 현정은 회장의 지분은 신주 상장 예정일인 12월19일 우리사주 지분을 포함해 총 22.98%로 늘어나게 된다.

KCC는 당황하는 가운데 대책마련에 부심중이지만 현재까지 묘책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만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8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가 KCC의 장기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시켰다고 밝힌 점 또한 주가에 치명적이었다.

S&P는 11월14일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 31.5%를 확보함에 따라 신용등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KCC의 지분을 축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KCC의 현재 지분율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권 문제도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의 김은진 애널리스트는 “KCC의 경영진이 자사의 채권단과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KCC를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 확보는 순수한 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KCC는 자사의 신용상태를 넘어서는 상당 수준의 재정 및 영업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S&P는 <부정적 관찰대상>이 현대그룹의 신용도와 현대그룹에 대한 KCC의 재정 지원 정도를 평가한 이후에 해제될 것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KCC의 장기 신용등급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11/19>